

점이 될 것이며,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이 있고 막대한 비용이 들더라도 감수할 것입니다.”

그 후 1969년 인간이 달에 도달할 때까지 8년간, 1인승 머큐리, 2인승 제미니, 3인승 아폴로의 시험발사가 4~5개월마다 이어졌는데, 내가 어렸을 때 한국 신문에도 자주 기사가 났던 기억이 나.

달에 가서 금을 캐오는 것도 아니고 땅을 소유하는 것도 아닌데, 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굳이 달에 가려 했을까?

구성원들의 화합을 이루고 결집된 힘을 모으는 데에는 목표를 공유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어. 우리나라에서 열린 2002 월드컵대회 때도 온 국민의 단합된 염원이 4강 신화를 가능케 했잖아. 마찬가지로 아폴로 계획은 미국 국민들의 의지를 한곳에 집결시켰어.

과학 관련 산업부터 국방, 교육, 의료, 식품개발 등 모든 분야의 초점을 달에 가는 데 맞췄지. 오늘날 미국의 1인당 GDP는 러시아의 6배에 달하지만, 1960년대 초반만 해도 소련과 동등하거나 여러 면에서 소련이 조금 앞섰거든. 그러다 미국이 앞서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 것이 ‘뉴 프런티어’ 정책이야.

플로리다 해안에 있는 우주센터는 일반인도 견학할 수 있어. 이곳의 이름이 바로 ‘케네디 우주센터’야. 그의 비전을 기념하는 곳이지.

우리가 케네디 대통령에게 배울 점이 뭘까?

첫 번째, 가슴 뛰는 구심점을 마련했다는 거야. 인간이 달에 간다… 멋지잖아. 비전이란 모름지기 들으면 가슴이 뛰어야 해.

두 번째, 이름을 붙였지. 뉴 프런티어! 내가 처음부터 반복해서 말했지. 이름 붙이기가 중요하다고. 비전은 자칫 공허하게 비칠 수 있어. 명확한 이름으로 쉽게 공유할 수 있어야 해.

세 번째, 목표를 향한 여정이 중도에 멈추면 안 돼. 민주당 출신의 케네디가 암살된 후 존슨 부통령이 정책을 이어받고, 그다음엔 공화당의 닉슨 대통령이 이어받고, 몇 번의 큰 사고로 우주인이 사망하는 비극에도 아폴로 계획은 중단 없이 진행되었어.